

‘일본정원 우라쿠엔(有楽苑)’

우라쿠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라쿠엔은 17 세기의 귀한 다실인 ‘조안(如庵)’을 위한 정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안은 다도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여겨지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3 개의 다실 중 하나입니다. 1971 년에 나고야철도주식회사(메이테쓰)가 조안을 매수하여 가나가와현 오이소(大磯)에서 아이치현 이누야마시(犬山市)로 이축했는데, 그곳에 이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라쿠엔을 만들 때 메이테쓰의 설계자가 목표로 한 것은 조안의 창설자인 다인·오다 우라쿠(織田有楽, 1547-1621)의 기호를 구현하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라쿠엔이라는 이름도 '우라쿠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라쿠엔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국보 ‘조안(如庵)’

오다 우라쿠(織田有楽)는 오와리국(현재의 아이치현 서부)에서 이누야마 성을 쌓은 힘있는 무사의 일족 오다 가문 출신입니다. 1618 년에 속세를 떠나 교토의 겐닌지 절 경내에 쇼텐인(正伝院, 정전원)이라는 이름의 저택을 지었습니다. 다회(茶會, 차모임)를 사랑한 우라쿠는 저택 옆에 다실을 설계하여 건축하고, 그 다실을 조안(如庵)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조안과 그 주위의 건축물은 메이지시대(1868-1912)까지 교토에 남아있었지만, 그 후 소유자가 바뀌면서 여러 번 이축되었습니다. 조안과 쇼텐인의 일부는 결국 미쓰이 가문의 소유물이 되었고, 가나가와현 오이소의 저택으로 이축되었습니다.

1969 년 미쓰이 가문은 이 건물들을 조안의 다정(다실에 딸린 정원, 로지)에 있던 물건들 및 그 외 많은 역사적 유물들과 함께 메이테쓰에 매각했습니다. 메이테쓰는 이 매입을 발판으로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정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 계획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유명한 건축가이자 건축사학자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 1895-1984)였습니다. 호리구치는 부임 전 수십 년 동안 조안을 비롯한 다실의 옛 스케치와 도면, 사료를 수집하는데 힘썼으며, 조안과 다른 다실에 관한 저서도 집필했습니다. 조안의 복원을 감수하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환상적인 정원을 만들게 된 기회는 호리구치의 필생의 사업을 집대성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원 건설

메이테쓰가 우라쿠엔의 건설지로 선택한 곳은 이누야마 성에서 가까운 유원지 터였습니다. 건설의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 1971 년 5 월 18 일, 호리구치가

나고야에 도착해 보니 메이테쓰의 종업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었고, 버스도 전철도 모두 운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호리구치가 이누야마에 온 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5월 19일 아침, 호리구치는 억수같이 내리는 빗속을 뚫고 현지를 시찰하러 갔습니다. 작업자들은 호리구치가 도쿄에서 보낸 도면을 토대로 1주일에 걸쳐 건물 위치를 표시하는 밧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호리구치는 자신이 설계한 선과 전혀 맞지 않고, 조안의 위치도 틀렸다고 격노했습니다. 다음 날 몇 가지 수정을 거친 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와 다음 해에 걸쳐 호리구치의 지휘 아래, 수복사, 석공, 목수가 우라쿠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재조립하고 복구했으며, 정원사의 손길이 세심하게 미친 생생한 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호리구치는 7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메이테쓰의 우비를 빌려 공사장에 나갈 정도로 온힘을 다해 임했습니다. 호리구치는 21번이나 이누야마를 방문했고, 그때마다 상세한 지시사항을 남겼습니다.

비전 실현

호리구치 스테미는 자연 소재의 특성을 디자인에 접목한 실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호리구치는 맨처음에 그렸던 정원의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돌과 나무의 개성을 살리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호리구치는 조안의 복원과 정원 조성 계획을 세울 때 사료와 1799년에 그려진 우라쿠의 저택 그림을 참고했습니다. 건물의 위치뿐만 아니라 울타리 모양, 정검돌 배치, 소나무 위치, 대나무 종류에 이르기까지 조안의 원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했습니다.

1799년에 그려진 그림에는 석탑이 있는 낮은 언덕이 있었고, 그 옆에는 소박한 돌다리가 놓인 연못이 그려져 있습니다. 호리구치는 연못을 파는 대신 고운 백사로 물을 표현하는 가레산스이(枯山水)로 이 풍경을 재현했습니다. 또, 우라쿠가 달구경을 하기 위해 사각으로 둘러친 '쇼게쓰다이(소월대)'라고 하는 곳도 재현했습니다. 정원 곳곳에 수백 년 전 문과 석등, 쓰쿠바이(신성한 장소 입구에서 제공되는 세면대)를 도입하고, 수십 그루의 거목과 돌을 옮겨 심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우라쿠엔은 당초에는 간단한 이전과 수복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정원 전체가 더 커졌습니다. 그 설계는 17세기 다인(茶人)의 미적 감각과 거장 건축가의 헌신과 비전, 그리고 이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를 위해 유지관리하는 관리인의 꾸준한 노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